



참된 영적 도약을 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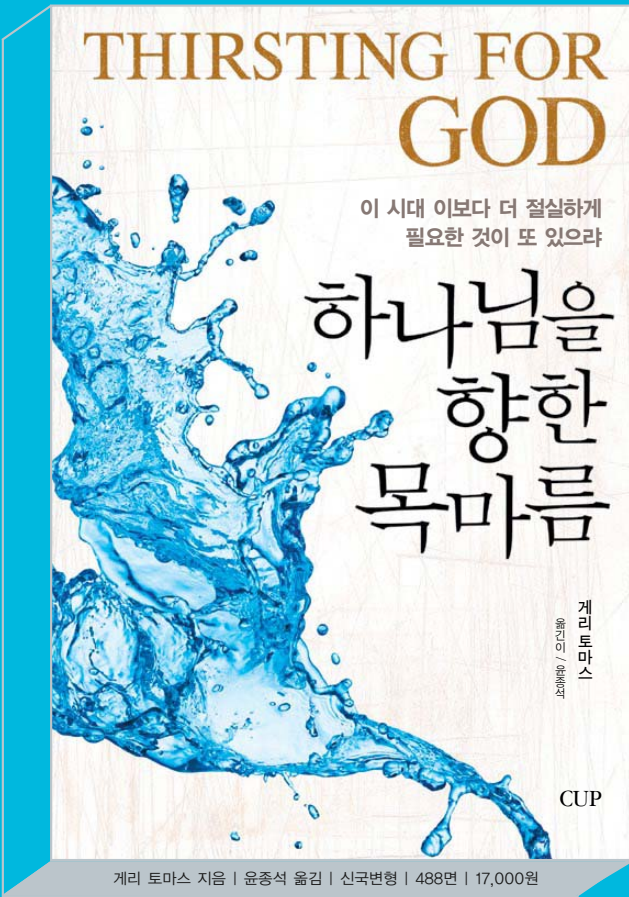
베스트셀러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를 삶으로 녹여낸 업그레이드판 드디어 출간되다

스테디셀러로 사랑 받고 있는 게리 토마스의 처녀작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20년의 내공을 담아 전면개정증보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또 한번 독자의 영성을 강타한다.

꼭 읽어야 하는 수십 권의 기독교 고전에서 영적 지혜를 뽑아낸 탁월한 책 이 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다! 수십 권의 고전을 관통한 놀라운 책이다. 고금을 아우른 영적 거장들과 지자의 삶의 연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와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란, 하나님을 향한 이기적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에 대한 공감이다. 영적 패스트푸드로 연명하는 삶에 지쳤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영혼의 수술! 광야에서 살아남고 형통하라 허약하나, 몸집만 거대해진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필수과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다. 세상을 비워 내고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산다.



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신국병형 | 488면 | 17,000원

죽음을 배우다 아르스 모리엔디

◎ 김민철 (지생통합병원장)

확실한 것?

“확실한 것?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딪히게 될 가장 확실한 사실이면서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죽음이지 않은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 의사가 되기까지 탄생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달리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바는 극히 미미하다. 그것도 육체의 죽음 현상에 국한된 지식에 한정되기 때문에 육체 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요소를 가진 전인으로서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인간 실존에 관한 것은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필자가 수련을 받기 시작한 1980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미 사망한 환자이지만 기관지 삽관을 한 상태로 앰부백(Ambu-bag)을 계속 조작하며 환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집에 도착한 후에야 기관지 삽관을 제거하고 죽음을 선언해주곤 했었다. 불과 3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민간신앙의 영향으로 사람이 집 밖에서 죽는 객사(客死 객지에서 죽음)하는 것은 본인에게 지극히 불행

한 죽음이라 여겼다. 또한 이 객귀(客鬼)가 다른 사람에게 붙어서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지경에 이른 사람도 꼭 집으로 옮겨서 운명하게 했던 것이다. 덕분에 그때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조부모가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무엇이 아니었다. 대가족 제도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하게 서양화(化)가 진행되었고 죽음의 풍속도를 바꿔 놓았다. 죽음의 장소는 집 대신 면회가 제한된 중환자실로 바뀌었고 흰 가운을 입은 의료인들 사이에서 홀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다가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임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그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다른 경쟁업체의 장례식장으로 옮겨진다. 죽은 사람은 죽기 전부터 객체가 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다분히 상업화된 죽음 관련 비즈니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리다 보니 죽음을 앞 둔 사람과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세상이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만든 생각훈련 길라잡이 재미있게 생각하며 읽다보면 신앙도, 생각도 쑥쑥 자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뀐다



유경상 지음 | 4·6배판 | 전면칼라판 | 15,000원



랩물 저 | 이지혜 역 | IVP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청탁받고 얼마 전에 죽음과 관련된 두 종류의 책을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보았다. 하나는 심리적, 종교적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죽음을 풀어 가는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다. 케이건 교수의 명성을 전인했고 인기 명 강의의 17년을 잇고 있다는 말이 충분히 납득될 만큼 철학자다운 뛰어난 논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논의로 하겠다는 저자의 전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속에는 불로초를 찾던 진시황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복제를 통해서라도 생명을 이어가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생의 욕구에 대한 터치가 애당초 막혀 있음을 느꼈다. 인간의 중대 사안이 논리만으로 이해되거나 파악될 수 없으며 또 인간은 그렇게만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한 권의 책은 포르투갈인으로 노벨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의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로 시작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나라에서 죽음이 중지되어 버렸다. 우선 죽음으로 장사를 하던 기업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망해버렸다. 보험회사, 장례업자, 요양원, 병원... 아니다, 병원은 만신창이로 찢겨진 몸으로 죽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상처를 치치하느라 다른 환자를 돌볼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의 신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는 아이러니하게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죽지 않는 부모는 죽도록 고통스런 날들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차라리 죽기를 소원하는 부모를 신고 죽음이 있는 옆 나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국경 분쟁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지만 죽음이 없는 나라 국민들은 심한 전상을 입어도 죽지 않는다. 죽음은 필연적인 것임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죽음을 중지시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작가는 소설을 흥미롭게 이끌어 가며 인간 실존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의 서평을 쓰라고 청탁을 했는데 웬 다른 작가들의 책임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것은 이 책의 차별화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죽음을 냉정한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죽음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중지시키면 행복해질까? 이에 대해 명성이 높은 철학자의 훌륭한 강의에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꼭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탓이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강의라기보다 철학자다운 사고와 질문을 던져 준 것이었다.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의 소설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비웃는 듯한 요소도 보여주고 있어서 죽음을 수용해야 할 당위성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그 다음에 대한 해답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전인적으로 살듯이 전인적으로 죽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에 관한 훌륭한 안내서가 된다. 즉,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이 없어버린 “좋은 죽음”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쓰여진 책이다. 현대

“
우리는 살기에도 바쁘고 의료가 죽음을 책임지도록 보험을 들어 놓아서 죽음을 너무 모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앞 둔 사람과 한번도 대화해 본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의학의 발달은 죽음을 준비하던 전통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죽음과 싸우는데 전력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점은 사실 암 전문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며 종종 느끼는 바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죽음과 싸우다가 죽음의 고개를 넘어 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살기에도 바쁘고 의료가 죽음을 책임지도록 보험을 들어 놓아서 죽음을 너무 모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앞 둔 사람과 한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은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우리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세워져서 누가복음 12:13-21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공간에 재산을 쌓아 두었지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때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과 같다. 여기서 죽음의 준비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눅12:21)가 되는 삶이라고 제시하듯이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유익중 중요한 점은 “죽음을 생각하라.”(Memento mori)는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죽음은 죄의 승리의 결과로 끔찍하고 절망적인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 안에 소망이 있다. 따라서 저자는 교회가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 그 소망을 환기시켜줄 수 없다면 실패

한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살피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실행하고 죽음을 통해서도 믿음을 표현했던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사라진 교회의 전통을 안타까워한다. 심지어 종교를 믿는 사람들(그중 95%는 기독교인)이 죽음을 앞두고 적극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세 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나 목회자의 심방을 받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할 때 죽음의 질이 더 낮다는 미국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인용하며 교회가 잘 죽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밝힐 때는 안타까움을 넘어 아픔을 느낀다. 책에 인용된 어느 노인병 학자의 “우리는 생명 존중이 지나치 나머지 죽음에 반대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한 제4장 ‘아르스 모리엔디’(죽음의 기술)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새롭게 해주는 압권이 다. 개인적으로는 제4장의 내용은 기술이라고 보다 심오한 기독교의 죽음의 신학이라고 여겨진다. 존 던(John Donne)의 명상 17번에는 헤밍웨이가 소설 제목으로 인용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라는 문장이 나온다. 중세 서양에서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탄생과 죽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

었다. 누군가가 죽으면 교회에서 그를 위한 조종을 쳤다. 조종이 울릴 때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위하여 저 종이 울리나”라고 묻지 말라는 것이다. 종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해 울리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죽음을 곧 자신의 성찰로 받아들여 승화시켰던 존 던의 인용은 4장의 깊이를 더해준다. 저자는 존 던이 “피골이 상접”한 채로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음을 설교했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존 던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성도가 따르고 준비하는 삶으로 그리고 있다. 이 믿음이 끔찍한 죽음마저도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좋은 죽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 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피땀을 흘리며 준비하시고 또 이를 위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죽음의 신학을 죽음의 경험으로부터 차단되어 죽음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낯선 신자들을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 죽음의 현장으로 초대하여 간접 경험을 통해 깨우치도록 설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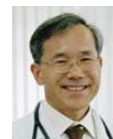
7장 “죽음을 앞둔 사람 돌보는 일”에서는 기독교 전통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를 제시한다. 환자와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돌보았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의 사망률이 낮았을 정도였다는 자료를 보여준다. 이것으로 외부인이 쉽게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7장의 결론은 오늘날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안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일 것이다. 안위한다는 말은 paraklesis라는 헬라어로 문자적으로는 ‘곁에 서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이것이 사후 장례식이나 유가족의 애도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 호스피스나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동기로 돌봄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해 죽음과 그에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 신학적인 기반 위에서 실제적인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각 장마다 개인 묵상과 그룹토론을 위한 질문들이 부록에 첨가되어 있어서 개인 뿐 아니라 그룹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말씀 중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니”(마 16:21; 막 8:31; 눅 9:22; 요 3:14)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어 성경(NIV)에 의하면 반드시(must)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다.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부활의 길로 가기 위한 “MUST”이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지나며 이 책을 일독하며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권한다.

저자 랍 톨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죽음을 생각’(Memento mori)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그 기반에서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는’(Carpe diem) 삶을 살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린 기독교의 본질, 즉 죽음의 전통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책을 관통하며 전달되고 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죽음을 실행하라!

『죽음을 배우다』(아르스 모리엔디)는 기독교인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걸작이다. 비교적 평이한 문체로 누구나 읽기 쉽게 쓰인 책이지만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의료인, 호스피스 종사자, 생명윤리학자, 유가족과 간병인, 영성 지도자 등 다양한 인터뷰와 취재를



김민철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현재 군포 자생통합암병원장이며, 전주예수병원장을 역임했다. 1994년 르완다 난민 구호 팀장으로, 그 후 SIM국제선교회 소속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일하기도 했다. 캐나다 TWU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였고 VIEW(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는 객원교수로 생명 윤리를 가르치기도 한다. 한국누기회(CMF) 이사장, 《누기들의 세계》, 《의료와 선교》 편집장 역임, 현재 한국기독교사회 회장이다. 저서로는 『의료 세계관이 결정한다』, 『한국사회 발전과 기독교』(공저), 번역서로 『상처 받은 세상, 상처 받은 치유자들』, 『의료의 성경적 접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등이 있다.